

10 경희의터전 2024-국제캠퍼스

‘세계로 웅비하는 새 경희’, 그 원점(原點)

*연재순서

⑥ 시리즈를 시작하며

① 광릉캠퍼스

② 국제캠퍼스 : ‘세계로 웅비하는 새 경희’, 그 원점(原點)

③ 서울캠퍼스

④ 부산 동광동 · 동대신동 캠퍼스

이금화 경희기록관 차장

1980년 3월 12일, 수원캠퍼스(현 국제캠퍼스) 첫 입학식이 열렸다. 3개 학부, 8개 학과, 입학 정원 450명으로 출발한 국제캠퍼스가 설립 인가를 받고 공식 출범한 것은 1979년 1월 10일, 개교 30주년을 맞는 해였다. 교사가 완공되지 않아 그해 입학한 신입생은 서울캠퍼스에서 수학해야 했다.

1년여의 준비 끝에 비로소 캠퍼스 체제를 갖추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것이다. 입학식을 앞둔 3월 3일, 대학주보에는 설립자 조영식 박사의 인터뷰가 실렸다.

“개교 25주년을 맞으면서 ‘세계로 웅비하는 새 경희’란 슬로건을 내걸었던 우리 학원은, 이제 세계적인 학문과 지성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초작업을 마쳤습니다. (중략)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수원캠퍼스의 새로운 체제 구상입니다. 50만 평의 부지를 확보해 완벽하고 광활한 설비를 갖추고, 갖가지 시설을 완비해 종래는 고황산캠퍼스(서울캠퍼스)와 쌍벽을 이루는 대학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당시 정부의 캠퍼스 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분교라는 형태를 따랐지만, 국제캠퍼스는 구상 단계에서부터 이미 독립적인 학문적 특성과 비전을 갖춘 캠퍼스였다. 다가올 국제화 시대, 첨단 과학 시대를 이끌어 갈 학문 분야의 미래 인재 육성이 목표였다. 폭넓은 기초학문 위에 전공 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인적 인격을 갖춘 리더를 키우고자 했다.

1970년대 말, 빠르게 증가하는 수도권 인구 분산에 초점을 둔 정부 기조에 따라, 문교부(현 교육부)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서울 소재 대학 증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고등 교육 정책을 집중했다. 경희는 이미 공간 면에서 포화 상태에 이른 서울캠퍼스의 과밀 현상을 타개하고, 쾌적한 환경과 넓은 공간에서 미래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학문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새 캠퍼스 건설 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었다. 그렇게 1978년

3월, 법인 이사회는 제2캠퍼스 설립을 의결하고 전담 위원회를 출범했다.

우선 과제는 최적의 부지를 찾는 것이었다. 캠퍼스 부지의 첫째 조건은 산과 강, 호수가 어우러진 자연환경이었다. 위원들은 대전, 공주, 청주, 이천, 여주에서부터 멀리 마산과 부여까지 전국을 누볐다. 수개월에 걸친 물색 끝에 마침내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신갈호수 부근에 광활한 터전을 찾았다.

드넓은 호수와 접한 동쪽 끝까지 학교 터로 확보할 수 있는 데다, 부지 내 제비봉을 중심으로 펼쳐진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산세, 넓은 골짜기와 알맞게 솟은 구릉, 사이사이의 평평한 들판은 학교 터로 최적의 장소였다. 이곳을 세계적인 학문의 전당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준 가장 좋은 조건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드넓은 부지’ 그 자체였다.

이곳의 정식 지명은 ‘서천리(書川里)’와 ‘농서리(農書里)’로, 공교롭게도 모두 글(書)과 인연이 있는 곳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선비들이 동네 앞에 흐르는 냇가에 모여 글을 읽었다 해서 글 ‘서(書)’와 내 ‘천(川)’을 합쳐 ‘서천리(書川里)’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경희가 이곳을 제2의 터전으로 삼아 더 큰 도약의 꿈을 펼치게 된 것도 단순한 우연은 아닌 듯했다.

1979년 5월 2일, 이공대학관(현 공학관) 기공식을 시작으로 캠퍼스 건설의 첫발을 내디뎠다. 1981년부터 5년간의 1차 계획을 수립하고 캠퍼스개발연구소를 설치해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1차 계획이 끝나는 1985년까지 강의 전용 건물 3동, 기숙사, 운동장을 완성하는 것이 계획의 골자였다. 동시에 학생회관, 도서관, 강의동 건립도 계획했다.

하지만 그사이 식수와 실험용으로 쓸 물이 부족해 학생 집단 항의 소동이 일어나 학교 당국이 밤잠을 설치가며 수원(水原) 찾기에 노심초사하는 등 개척의 어려움이란 희망과 꿈의 크기만큼이나 실로 크고도 다양한 것이었다.

1980년, 마침내 1호관인 이공대학관이 완공되고, 2년 뒤엔 두 번째



①사색의 광장 조성 이전 모습 ②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를 알리는 이정표 주변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다. ③1979년 5월 2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캠퍼스 건설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사진은 토지 정리 작업이 한창인 모습. ④‘세계로 웅비하는 새 경희’, 그 원점(原點)인 국제캠퍼스의 현재 (사진=경희기록관 제공)

건물인 어문학관(현 외국어대학관)이 낙성돼 준공식을 가졌다. 5월에는 체육대학관 착공, 1년 4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1983년 가을, 완공을 맞이했다.

어문학관 건설 당시 감나무, 느티나무 같은 다양한 고목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살리기 위해 설계 변경을 단행했다. 마찬가지로 체육대학관도 자연경관과 수목을 보존하면서 기능적인 건물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이는 건축물의 편의성,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자연과의 예술적 조화를 중시하는 경희의 캠퍼스 조성 철학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1984년엔 기숙사 애지원, 1985년 국제·경영대학관, 생명과학대학관이 완성돼 캠퍼스 개발 1차 계획을 마무리했다. 외적 성장과 함께 국제캠퍼스는 6개 단과대학, 32개 학과에 학부 재학생 약 6천 명의 규모가 됐다. 그해 입시에서 사회학도가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학과가 5~7대 1의 경쟁률을 보

여졌다.

우수한 신입생 유치와 더불어 재학생과 교수진의 교육, 연구, 실천 활동에 부족함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캠퍼스 개발 2차 계획이 이어졌다. 학생회관(1990), 중앙도서관, 천문대(1995), 사색의 광장(1996), 우정원(1998), 국제학관, 멀티미디어 교육관·글로벌관(1999)이 차례차례 들어서면서 국제캠퍼스는 그 면모를 일신해 갔다. 새천년을 맞아 새로운 정문인 새천년 기념탑-네오르네상스 문(2001)을 시작으로, 전자정보대학관, 노천극장(2004), 예술디자인대학관, 제2기숙사(2008), 선승관(2017)이 완공돼 비로소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희는 제2 캠퍼스 건립을 구상하면서 서울과 국제캠퍼스를 각각 특성화된 종합캠퍼스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에 따라 인문·사회, 의학, 기초과학, 예술 등 순수학문 중심의 서울캠퍼스와 공학, 응용과학, 국제학, 현대예술, 체육 등 응용학문 중

심의 국제캠퍼스로 순차적인 편제 개편을 추진했다. ‘하나의 경희’를 목표로 했던 서울과 국제캠퍼스는 2011년 8월, 마침내 교육부로부터 법적인 통합 승인을 받아 학문 간 융복합과 교류를 확대하고, 대학의 교육, 연구, 실천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제2르네상스 햇빛 들어 온 누리 밝히는 등불 켜자.’ 중앙도서관 앞 사색의 광장에 있는 두 개의 오벨리스크 문구 중 하나다. 여기에는 ‘문화세계의 창조’와 함께 새로운 도덕 질서 위에서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는 제2르네상스 운동의 원점이 되고, 이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는 국제캠퍼스의 염원이 담겨있다.

설립자의 바람처럼, 국제캠퍼스가 새천년 기념탑-네오르네상스 문을 통해 세상의 새롭고 깊은 학문과 사상이 우리를 향해 들어오고, ‘학문을 통한 평화’라는 경희의 이상이 세계를 향해, 인류를 향해 끊임없이 뻗어나가길 기원한다.